

# 朴, 유튜브·라방 활용 '소통' vs 吳, 오픈마이크 '시민참여'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 새로운 유세 양상

선거 유세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이 여전히 유세의 중심이지만, 유튜브의 등장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자들이 따라붙어 후보의 말과 행동을 취사선택해 보도했던 옛날과 달리 진보·보수 유튜브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여준다. 유튜브와 토론을 갖기도 하고 시민을 유세차에 올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을 듣기도 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새로운 유세 양상을 들여다 본다.

◆朴 "유튜브·중·인스타 라방 다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러 유세현장에 가보면 꼭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진보 유튜브다. 이따금씩 보수 유튜브가 있지만 박 후보 유세 현장엔 5~10명의 진보 유튜브들이 따라붙는다.

보통 유세현장에는 카메라맨들이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삼각대 위에 육중한 ENG 카메라를 얹어 후보의 말과 영상을 담는다.

이때도 유튜브들은 어김없이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있었다. 20~30대로 보이는 젊은 유튜브도 여러 보였다.

박 후보가 2일 오후 유세로 청량리 경동시장을 찾았을 때, 한 유튜브는 박 후보의 명함을 받은 시민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대 응원 한 마디를 부탁했다. 취기에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른 시민은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엄지를 스마트폰 렌즈를 향해 내던졌다.

권력의 언어를 독점했던 언론의 범주가 확장되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박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6개 진보 유튜브와 지난 2일 긴급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원래 4번으로 계획됐던 오세훈 후보와의 토론 일정



박영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박영선의 티키타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박영선 후보 캠프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 유튜브 5~10명 동행 6개 진보 유튜브와 긴급토론회도

유세현장 차량 대형스크린 활용 화상채팅 '줌'으로 시민과 토크쇼

이 오 후보 측의 갑작스러운 취소로 3번으로 줄어들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유튜브 채널(고발뉴스TV·김용민TV·박시영TV·새날·시사파TV·이동형TV)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227만 6000여명에 이른다.

이런 유튜브와의 만남이 꼭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은 아니었다. 2일 긴급 토론회의 경우 패널로 참여한 여론조사 기관 박시영 원지코리아 대표는 "투표 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중 본다"며 "얼핏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각광 받았던 화상 채팅 '줌'도 이번 박 후보의 선거유세에 적극 활용됐다. 저녁에 방송 토크쇼가 잡혀있어 바쁠 때는 오후 6시에 지역을 돌며 시민과 힐링 토크쇼를 가졌던 것을 유세차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에서 화상으로 진행했다. 다만, 통신 상태에 따라 소통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또 박 후보는 30년간 MBC에서 간판 기자로 활약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주영 전 현대 회장, 김수환 추기경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경제 매거진'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진행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당시 직접 라이브커머스시스템인 '가치삼시다 플랫폼'에 쇼호스트로 출연해 견과류바 200개를 1시간 만에 팔았다는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을 살려 박 후보는 저녁 유세를 끝내기 전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일명 라방을 활용해 젊은 층과 소통을 시도하기도 했다.

### ◆吳 "보수=고리타분" 편견 깬다

유례없이 높은 20대 지지율로 선거 운동의 재미를 맛본 보수 야당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유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캠프에 따르면 20~30대가 무대에 올라 2번 지지 호소 연설을



오세훈 후보가 4일 아차산역 앞에서 진행된 '청년 마이크' 현장에서 젊은이들과 기념 사진을 남기고 있다.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일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무대올라 현 정권 실정 까발려 '호응' 높아

블랙유머 가미 선거포스터 배포 보수 편견 깨고 중도층 결집효과

하는 '청년 오픈마이크', 공약을 홍보하고 유세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브 채널 '오세훈TV', 블랙 유머를 가미해 만든 선거 포스터 등을 통해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시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건 마이크를 쥔 젊은이들이 현 정권의 실정을 날 낚이 까발리는 '청년 오픈마이크'다.

한국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일본으로 건너가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면세점에서 일했던 구근모 씨가 지난 3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쏟아낸 이야기를 들어보자.

구근모 씨는 "집권 여당과 정치인들, 그들을 따르는 집단의 반일운동 프레임에 타격을 입어 저는 잘 다니던 면세점에서 해고됐다"며 "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취업 자금을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서빙을 하며 주경야독했다. 그런데 무리를 한 것인지 각막에 손상을 입어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고 '각막 재발성 상피 미란'에 걸려

...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가 낀 안경에 김이 차 앞이 뿌옇게 변했다. 현장에서 구 씨의 연설을 듣던 시민들은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를 외쳐댔다.

이 같은 '2030 시민참여유세'가 기성 정치인의 야당 지지 호소 연설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유튜브 조회수로 증명된다. 오 후보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최근 2주간 올라온 게시물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밀레니얼 세대의 오 후보 지지 선언이었다. '유세 현장에 일반인이?! 비니좌의 역대급 연설', '20대는 절대 1번을 뽑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각각 10만, 8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오 후보가 시장이었을 때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시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인터뷰로 풀어낸 영상 등이 업로드됐다. 이 유튜브 영상들에는 "한강르네상스 없었으면 서울시민 다 같이 글램핑장 같은 곳으로 휴식공간 찾아 떠나야 한다. 전시행정이 아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흡수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것 같다", "소년이여 신화가 돼라, 오세훈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 등의 댓글이 달렸다.

'피식' 웃게 만드는 선거 홍보물도 보수당은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를 깨며 중도층 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일 '선관위 공식 인증, 더불어민주당 = LH로남불당'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이틀만이라도 흑색선전, 공작의 유혹을 떨쳐내길 바란다"면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개입' 위원회(이하선개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4월 7일 유권자의 힘, 서울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은 '선개위'와내로남불(=LH로남불)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박태홍 기자 hjk1@metroseoul.co.kr

##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 등 8곳 창업보육실 입주

### 맞춤 교육·멘토링 등 지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김포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내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4월 2일 각 기업들이 입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2일 사회적경제 분야(예비)창업자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인 창업보육실 입주 희망자 중심사를 통해 공유 사무실 6개소(㈜도시문화연구소, 네모토피아, ㈜우리나라

네트웍스, 함께하는 맘, 집합건물자치관리지원 사회적협동조합, 해피플래닛(주), 독립형 사무실 2개소(생태평화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 김포관광협동조합)의 입주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입주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준비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입주 기간은 입주 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 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실을 통해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의 공간지원과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1 | 해질 / 18:59

4월 6일 (화) 음력 : 2월 25일

수도권 날씨 8~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5/19, 동두천 6/20, 가평 5/19, 파주 5/19, 서울 8/19, 양평 6/20, 수원 8/17, 용인 8/17, 평택 5/19, 백령도 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1025명 ...전년 비 1.5배 증가  
▲ 선관위, 재보선 투표관리 4만명·개표관리 1만4000명 투입 /사진 뉴시스

▲ 美 아시아계 여성, 반려견 산책 중 흥기 짙어 숨겨  
▲ 바이트댄스, 인도 정부 계좌동결 '불법' 고소



▲ 항공 여객 연일 100만명 ↑ ...델타, 중간 좌석 한시적 개방  
▲ 日, 코로나19로 주 3일 쉬는 '선택적 주휴 3일제' 검토 /사진 뉴시스